

학교 냉난방기 8대 중 1대 ‘노후’ 3년 새 평균 전기요금 1405만원 ↑

수도권, 노후 냉난방기 54.6% 몰려
2023년에만 전기요금 940만원 ↑
한병도 의원 “재정·학습환경 손해”

전국 학교 냉난방기 8대 중 1대가 교육부가 정한 사용연수 12년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설비가 누적된 가운데 학교당 평균 전기요금은 3년 새 29.4% 올라 학교 재정 부담도 커졌다.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7월 말 기준 전국 초·중·고교와 특수학교가 보유한 냉난방기 64만4756대 가운데 7만9166대(12.3%)가 사용연수 12년을 초과했다.

지역별 노후율은 대전이 24.2%로 가장 높았다. 대전 학교 냉난방기 4대 중 1대가 노후 기기인 셈이다. 인천도 20.5%에 달했고 서울 14.8%, 광주 14.2%, 부산 13.8%, 경기 13.7% 순이었다.

반면 신설 학교가 많은 세종은 노후율이 1.6%로 가장 낮았다. 이어 제주 3.2%, 강원 5.8%, 울산과 충남이 각각 6.5%였다. 대전의 노후율은 세종의 15배에 육박했다.

〈학교 보유 냉난방기 현황〉/한병도 의원실

지역	냉난방기 설치	노후설비
서울	91,838	13,549
부산	37,175	5,117
대구	30,303	3,186
인천	36,590	7,498
광주	18,711	2,651
대전	23,216	5,608
울산	15,284	991
세종	7,635	125
경기	162,042	221,74
강원	21,136	1,222
충북	22,126	2,371
충남	31,771	2,063
전북	28,333	1,905
전남	29,477	2,334
경북	37,021	3,500
경남	43,160	4,584
제주	8,938	288

노후 기기 수는 경기가 2만2174대로 전국의 28.0%를 차지했다. 서울 1만3549대, 인천 7498대가 뒤를 이었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전국 노후 냉난방기의 54.6%가 몰렸다.

한 해 동안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한 냉

난방기 대수는 2023년 6만4468대로 정점을 기록한 뒤 2024년 5만5957대, 2025년 4만7791대로 2년 연속 감소했다. 2023년과 비교하면 2년 만에 25.9% 줄었다.

같은 기간 학교의 전기요금 부담은 증가했다. 학교당 연평균 전기요금은 2022년 4778만원에서 2025년 6183만원으로 3년 동안 1405만원(29.4%) 올랐다. 상승 폭은 2023년에 집중됐다. 학교당 전기요금은 2023년 한 해에만 940만원(19.7%) 올랐고, 2024년과 2025년에도 각각 4.0%씩 상승했다. 2025년 기준 학교당 전기요금은 세종이 84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8304만원, 울산 7020만원, 대전 6916만원, 경기 6843만원 순이었다. 가장 적은 전북은 4584만원으로 세종과 1.83배 차이가 났다.

한 의원은 “전기요금이 3년 만에 학교당 1400만원 이상 늘어난 상황에서 수명이 지난 기기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교육청 재정과 학생 학습환경 모두에 손해”라며 “교육부가 연도별 교체 목표와 고효율 기기 전환 비율을 담은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metro



21일 동대문구 서울캠퍼스에서 열린 ‘제45회 유엔 세계평화의날 기념 국제회의의 Peace BAR Festival(PBF) 2026 및 제2회 미원평화상 시상식’ 기자간담회에 세계원자과학자회보(BAS) 주요 인사들이 간담회에 참석했다. (왼쪽부터) 경희대 김원수 미래문화원장, 알렉산드라 벨 BAS 회장, BAS 다니엘 홀츠 과학·안보위원회 의장·데이비드 쿨만 이사회 의장·아비 로브 하버드대 석좌교수 겸 미원평화상 선정위원.

/김수정 기자

경희학원, ‘제2회 미원평화상’ BAS 시상

〈세계원자과학자회보〉

BAS 석학들 ‘교육의 역할’ 강조

“학생들에게 사고하는 법을 가르쳐야 할 대학이, 그 역할을 AI에 넘겨주고 있는 않은가.”

제2회 미원평화상 수상 기관인 세계원자과학자회보(BAS) 석학들이 인공지능(AI)의 빠른 발전 속 대학과 연구자가 지켜야 할 ‘교육의 역할’을 강조했다.

경희학원은 21일 동대문구 서울캠퍼스에서 ‘제45회 유엔 세계평화의날 기념 국제회의의 Peace BAR Festival(PBF) 2026 및 제2회 미원평화상 시상식’과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알렉산드라 벨 BAS 회장, BAS 데이비드 쿨만 이사회 의장·다니엘 홀츠 과학·안보위원회 의장·존 포프 공보·소통 총괄과 아비 로브 하버드대 석좌교수 겸 미원평화상 선정위원 등이 참석했다.

아비 로브 교수는 핵무기를 둘러싼 국가 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1945년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투하 이후 설립된 BAS가 정책 입안자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온 점을 선정 이유로 들었다. 그는 핵무기뿐 아니라 AI 역시 BAS가 경계하는 새로운 위협이라고 언급했다. 알렉산드라 벨 BAS 회장은 수상에 감사와 영광의 뜻을 밝히며, BAS는 지난 80년간 인류가 직면한 실존적 위협의 현황을 공개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이끌어왔다고 말했다.

AI 역시 과학기술을 넘어서 사회적 문제가 필요한 영역으로 주목됐다. 홀츠 위원장은 “AI가 다른 위협과 다른 점은 변화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이라며 “기술 안전과 통제가 전반적으로 뒤처지고 있는 만큼, 실제 도입에 앞서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많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미원평화상은 경희학원이 설립자 미원조영식 박사의 세계평화 사상을 기려 제정한 상으로, 지구촌 평화와 인류 공영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김수정 기자 kcrystal@

“서울 주택공급 부족, 과거 정비구역 해제 영향”

서울 주택정책 성과공유회

오세훈 시장, 박원순 전 시장 시정 지적
“2012년부터 2020년까지 389곳 해제”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의 주택공급 부족 원인으로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 이뤄진 정비구역 해제를 지목했다. 그동안 전임 시정에 대한 비판을 자제해 왔지만 책임을 현 서울시에 돌리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며 “더 이상 참지 않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1일 서울시장에서 열린 ‘2026 서울 주택정책 성과공유회’에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됐고, 이들 구역의 예정 물량은 43만호였다”며 “당시 재개발·재건축을 독려했다면 지금과 같은 주택 부족이 발생했겠느냐”고 말했다.

오 시장은 서울 주택공급에서 민간 정비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근거로 재개



오세훈 서울시장의 21일 서울 중구 서울시장에서 열린 서울 주택정책 성과 공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발·재건축 중단이 공급 감소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2012년부터 2020년까지 뉴타운·재개발 등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됐으며, 이들 구역의 계획상 공급 물량은 43만호로 추산됐다.

서울시는 2021년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한 데 이어 주거정비비지수제 폐지와 역세권 종상향 등 규제 완화와 사업성 개선을

추진했다. 현재 서울 전역 496곳에서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214개 구역·30만7000호 규모의 사업이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2031년까지 정비사업 31만호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 시장은 최근 서울 외곽의 집값 상승을 ‘땀탄화’ 현상으로 평가한 대통령의 발언도 비판했다. 그는 “전세물량이 사라지고 월세화가 가속하면서 전세보증금과 월세가 함께 오르고 있다”며 “서민들이 이를 견디지 못해 지구책으로 서울 외곽의 아파트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사고 있는 것이 외곽 집값을 끌어올린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원년부터 결과까지 소상히 보고받고 깊이 성찰한 뒤 대안을 내놓아야 할 시점”이라며 “기존 정부 정책에는 잘못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는 데, 많은 시민이 좌절과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

민경선 시장 “청년들 실질적인 기회 제공”

고양시 청년의 날 맞아 소통간담회

고양시가 청년의 날을 맞아 지역 청년들과 직접 만나 일자리와 창업, 교통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고양시는 지난 19일 덕양구 화정동 청년공간 내일꿈제작소에서 ‘2026년 고양청년의 날 청년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경선 고양시장과 지역 청년 6명이 참석해 청년들이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과 지역사회에 바라는 점을 공유하고, 청년의 시각에서 도시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민경선 시장은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자신의 가능성을 펼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양시는 지난 19일 덕양구 화정동 청년공간 내일꿈제작소에서 ‘2026년 고양청년의 날 청년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민경선 고양시장(가운데)과 청년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민 시장은 “청년들이 살고 싶고, 일하고 싶고, 또 즐길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오늘 나는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시정에 충실히 반영하고,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서울교육청, 22일 ‘교육공동체 문화다양성 콘서트’ 개최

‘다름·소속감’ 주제… 조나단 강연

서울시교육청이 방송인 조나단과 함께 ‘다름’과 ‘소속감’을 주제로 문화다양성을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22일 오후 3시 30분 서울 용산구 본청 대강당에서 ‘2026 교육공동체 문화다양성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8월 시작해 12월까지 매달 열리는 연속 프로그램으로, 이번 행사에는 교원·직원 400여 명

이 참여해 강연과 공연 등을 관람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방송인 조나단이 ‘우분투: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다’를 주제로 강연한다. 공교민주공화국 출신인 조나단은 한국 사회에서 성장하며 경험한 ‘다름’과 ‘소속감’에 대해 공유하고, 다문화 교실에서 필요한 관계와 태도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예정이다.

협연 무대도 이어진다. 다문화가정 어린이·청소년으로 구성된 우리다문화어린 이합창단과 발달장애인 임직원들로 구성

된 우리은행 ‘별별 하모니아 오케스트라’가 무대에 올라 ‘Heal the World’와 ‘아름다운 세상’ 등을 연주한다. 음악을 통해 공존과 연대의 의미를 전달할 예정이다.

대담 세션에서는 정근식 교육감과 조나단, 사회를 맡은 연극배우 준불 베틀이 ‘우리가 그러는 서울교육’을 주제로 대화를 나눈다. 교직원들의 학교생활 에피소드와 고민을 듣고, 현장 질의응답을 통해 교육 현장의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김수정 기자 kcrystal@

수원시, ‘사이버 서밋 코리아 2027’ 연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제 사이버안보 행사인 ‘사이버 서밋 코리아 2027(Cyber Summit Korea 2027)’이 수원특례시에서 열린다.

국가정보원과 국가보안기술연구소가 주최·주관하는 사이버 서밋 코리아는 국내외 정부기관과 국제기구, 사이버안보 유관기관, 정보보호기업, 산·학·연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국제행사다. 전 세계 33개국 60개 기관에서 3000여 명이 참가

할 예정이다.

행사에서는 국제정보교류회의와 국제 콘퍼런스, 국제 사이버훈련(APEX), 사이버공격방어대회(CCE), 기업 전시 등 사이버안보 분야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시는 행사 기간 수원화성문화제와 수원화성 미디어아트 등 지역 문화행사와 연계해 국내외 참가자들이 수원의 역사와 문화를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수원(경기)=김대의 기자 dykimi@